

윤석열정부 경제정책 평가 핸드북

We Crashed

우리 경제·민생은 폭망했다



We Crashed

우리 경제·민생은 폭망했다

발간사

정대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6



우리 경제는 폭망했다

9

- 성장률 폭망 ❶ : 한일 역전 10
- 성장률 폭망 ❷ : 선진국에도 역전 11
- 생활물가 폭망 12
- 수출 폭망 13
- 쌍둥이 적자 14
- 초대기업 폭망 15
- 트리플 폭망 16



우리 민생은 폭망했다

17

- 가계소득 폭망 18
- 서민소득 절망 19
- 불평등 절망 ❶ : 더 낮아진 소득 20
- 불평등 절망 ❷ : 더 심해진 불평등 21
- 물가 고통 ❶ : 거꾸로 소득 22
- 물가 고통 ❷ : 두려운 일상 23
- 살림살이 폭망 24



우리 재정은 폭망했다

25

- 무턱대고 부자감세 26
- 역대급 세수폭망 27
- 분식회계 재정운용 28
- 이율배반(二律背反) 예산 29
- 미래포기 예산 30
-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31
- 불평등 저성장 32
- 낙수에 무너진 건전재정 33
- 尹정부야, 정답은 분수야 34



우리 노동자·농민은 절망했다

35

- 일자리 폭망 36
- 일자리예산 절망 37
- 임금 폭망 38
- 임금불평등 절망 39
- 장시간노동 절망 40
- 쌀값 폭망 41
- 농민소득 폭망 42
- 수산업자 절망 43



우리 청년·여성은 절망했다

45

- 청년일자리 폭망 46
- 청년백수 절망 47
- 청년예산 폭망 48
- 청년부채 절망 49
- 청년의 삶 절망 50
- 여성안전 절망 51
- 여성임금 폭망 52
- 잼버리 폭망 53



우리 기후·환경은 폭망했다

55

- RE100(재생에너지 100%) 폭망 56
- 재생에너지 예산 폭망 57
- 탄소감축 폭망 58
- 기후정의 폭망 59
- 한전적자 폭증 60
- 해양주권 절망 ❶: 방사능 절망 61
- 해양주권 절망 ❷: 오락가락 여당대표 62
- 수질관리 폭망 63
- 환경부 폭망 64



우리 중소벤처·자영업은 폭망했다

65

- 자영업 예산 폭망 66
- 자영업 대출 폭망 ❶: 다중채무자 급증 67
- 자영업 대출 폭망 ❷: 연체율 급등 68
- 중소기업 폭망 69
- 벤처 폭망 70
- 창업 폭망 71
- R&D 예산 폭망 72



발간사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정 태 호

세계 꼴찌인 우리나라 출생률 통계를 보고, 미국의 한 대학교수가 던진 한마디입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 와!"

우리나라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세계 1위입니다.

그 주원인은 양극화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을 통해 재분배 정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쇠락하고 있습니다.

OECD는 지난 9월 전세계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기존대로 유지한 반면, 일본의 성장률은 0.5%포인트 높였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당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등기업 삼성전자의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대비 88% 감소했습니다. 폭등한 물가는 다시 떨어지지 않아, 저소득층·고소득층의 실질소득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상저하고 대신 상저하저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도 어둡습니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을 5조원, 17% 삭감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외국 교수들도 R&D 예산 삭감이 한국 과학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은 손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열변을 토하는 재정건전성은 무엇입니까? 윤석열정부의 관리재정수지는 2022년 -117조원, 2023년 상반기 -83조원 등 총 -200조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 대응했던 문재인 정부의 2020~2021년 관리재정수지 합계인 -203조원과 거의 같습니다. 정부는 성장도 놓치고, 재정건전성도 모두 놓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추경을 올해 1월부터 제안했습니다.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를 살리자는 민주당의 절박한 외침에 윤석열정부는 모르쇠 폭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9월에서야 59조원 세수결손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재원은 다른 목적의 기금에서 채우면 된다는 식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줄 언론도 우리 경제의 위기 징후를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의 불행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We Crashed : 우리 경제·민생은 폭망했다> 핸드북은 폭망하는 우리 경제의 현 주소와 절망하는 우리 국민의 심정을 담아냈습니다. ‘폭망’ 또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인가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경제와 민생의 실태는 폭망 그 이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We Crashed> 핸드북은 1%대 경제성장률의 의미, 심각해지는 불평등, 세수결손 59조원의 위험성, 적자가구 문제 등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중소·벤처기업, 자영업자 등 다양한 국민의 절망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핸드북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것입니다.

민주연구원은 최신 경제통계 중 가장 나쁜 수치를 선별했습니다. 가장 굵아터진 부분을 정확하게 치료해야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으로 남기를 원하신다면 핸드북의 내용과 통계수치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차례에 걸친 <We Crashed> 시리즈와 핸드북 발간에 수고해 주신 민주연구원 「윤석열정부경제정책평가TF」 연구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정태호



We Crashed ①

우리 경제는 폭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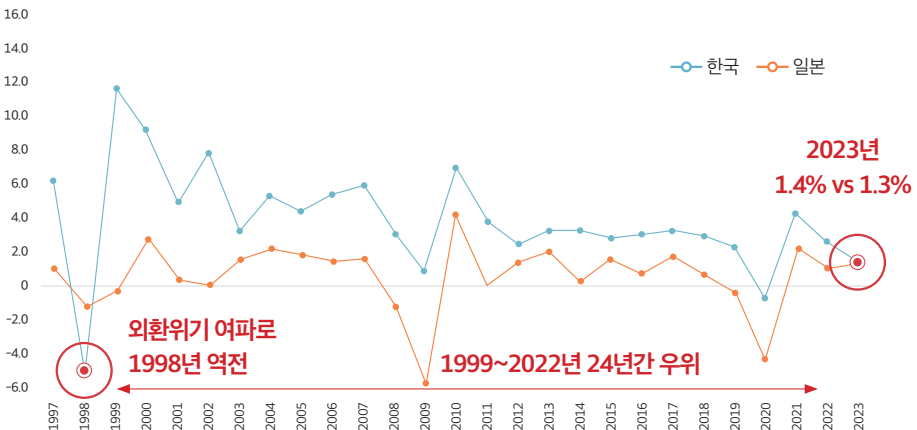
성장을 **폭망** ① : 한일 역전



“윤석열 감독 한국 경제팀, 한일전 패배?” 경제성장을, 25년만에 일본에 역전당할 가능성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동안, 한국 경제성장률은 일본에 늘 앞서왔다
- 2023년 성장률 전망치(OECD) : 한국 **1.4%** vs **1.3%** 일본
한국은 0%대 성장세(1Q 0.3%→2Q 0.6%), 일본은 1%대로 증가세(1Q 0.7%→2Q 1.5%)
- 한국은행 2023년 성장률 전망치 6번 하향 조정
: ('22.2월) 2.5%→2.4%→2.1%→1.7%→1.6%→1.4%→('22.8월) 1.4%

경제성장률 : 한일 역전 가능성 (%)



자료 : OECD statistics

성장을 폭망 ② : 선진국에도 역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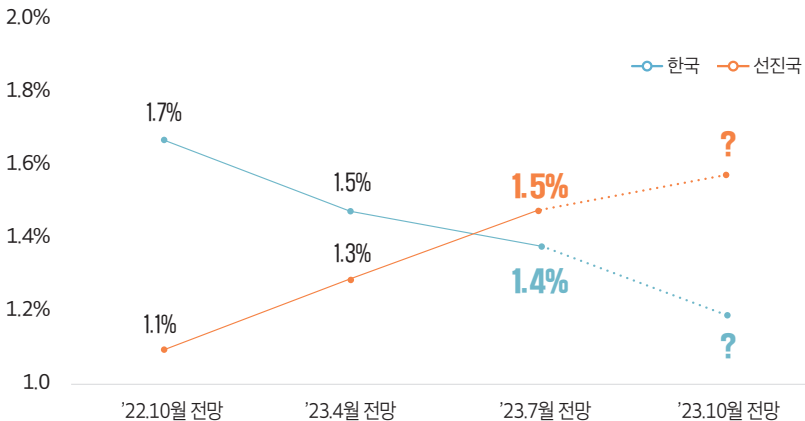


“이래도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고?”

외국 경제는 살아나고 우리나라 경제는 죽어가고

- IMF 성장률 전망치 : 전세계* · 선진국은 상향조정, 우리나라만 하향조정
* 전망시기별 2023년 성장률 : ('22.10) 2.7%→('23.4) 2.8%→('23.7) 3.0%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통계관측 70년간 6번째로 나쁜 낙제점
: '98년 외환위기(-5.1%) '80년 석유파동(-1.6%) '20년 코로나(-0.7%)
'09년 금융위기(0.8%) '56년 비상경계령(0.6%) '23년 무대책(1.4%)

경제성장률 : 선진국에도 역전 (%)



자료 : IMF Economic Outlook

생활물가 폭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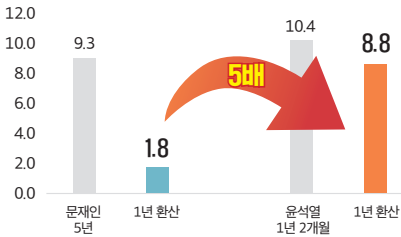


“물가상승률은 떨어졌다는데” 정권 바뀌고 왜 이렇게 비싼 거야?!

* 연평균증가율 비교 : 文정부 5년과 尹정부 1년 2개월을 1년 단위로 환산

- 월별 물가상승률 : (‘22.7월) 6.3%→(‘23.1월) 5.2%→(‘23.7월) 2.3%
- 라면 한 끼도 쉽지 않네 : 라면 5배*, 파 41배, 계란은 두 정부 모두 하락
* 라면가격이 文정부 5년간 9.3% 올랐는데, 尹정부 1년 2개월만에 10.4% 상승
- 아기 키우기도 쉽지 않네 : 분유 2770배, 사탕 83배, 종이기저귀 7배 급증

라면 : 가격상승률 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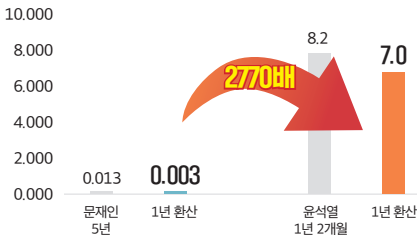
파 : 가격상승률 41배



계란 : 가격상승률 둘다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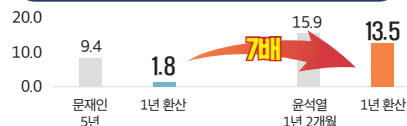
분유 : 가격상승률 2770배



사탕 : 가격상승률 83배



종이기저귀 : 가격상승률 7배



주 : 文정부(2017.5~2022.5), 尹정부(2022.5~2023.7) 물가지수 연평균증가율 기준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수출 폭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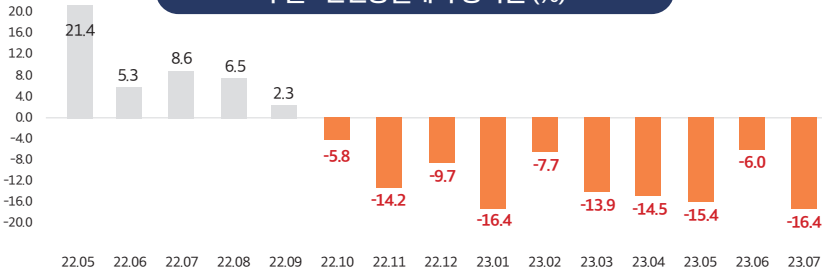


“10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10개 수출품목 중 9개 마이너스 전환

*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가율 기준,尹정부 2022.5~2023.7 15개월 분석

- 수출규모가 큰 10개 중분류 품목 중 9개 품목이 최근 모두 마이너스 행진
- 품목별 마이너스 : 전기기계장치 15개월, 비철금속·플라스틱 14개월, 유기화학물 12개월, 철강 11개월, 통신·녹음기기 7개월 연속

수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10개 주요품목의 월별 성장률 마이너스 여부

	'23년 수출액	2022년												2023년							감소 개월수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수출 전체	3,575												●	●	●	●	●	●	●	10	
도로주행차량	533		●																	1	
전기·기계장치	497	●	●	●	●	●	●	●	●	●	●	●	●	●	●	●	●	●	●	15	
통신·녹음기기	315												●	●	●	●	●	●	●	7	
석유·석유제품	293													●	●	●	●	●	●	5	
철강	179					●		●		●		●	●	●	●	●	●	●	●	11	
기타전문·과학기구	144												●	●	●	●	●	●	●	7	
플라스틱(원료)	143		●	●	●	●	●	●	●	●	●	●	●	●	●	●	●	●	●	14	
유기화학물	120				●	●	●	●	●	●	●	●	●	●	●	●	●	●	●	12	
무기화학물	108																		●	1	
비철금속	83		●	●	●	●	●	●	●	●	●	●	●	●	●	●	●	●	●	14	

주 : 2023년 수출액은 1~7월 누적액 (단위 : 억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쌍둥이 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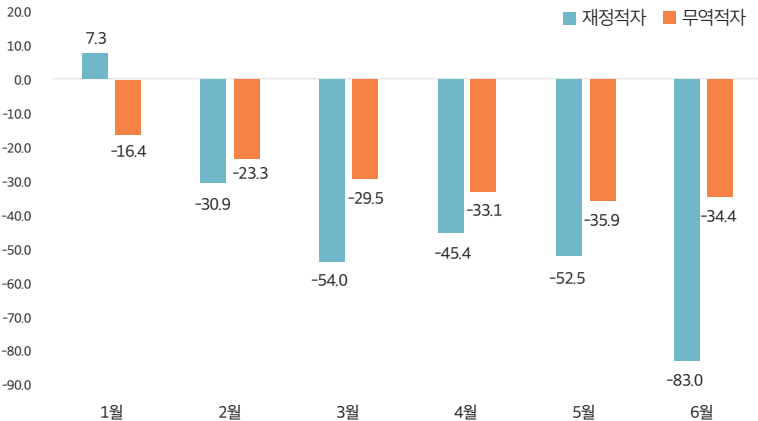


“겪어보지 못한 위기”

재정과 수출의 동시 위기

- 쌍둥이 적자(twin deficit) : 재정수지적자와 경상수지적자 동시 발생
금융·외환시장 불안, 국가신인도 하락 등 국가위기로 연결 가능
- 관리재정수지는 3월 -54조원, 6월 -83조원으로 지속 악화
- 무역수지는 반도체 불황과 대중 수출 부진으로 5월까지 지속 적자 기록
* 다만, 경상수지는 상반기 24억달러(3조원) 흑자 시현

쌍둥이 적자 : 2023년 1~6월 (조원)



주 : 월별 누적기준. 무역수지는 수리일 기준, 환율은 1,300원/USD로 계산
자료 : 기획재정부 월별 재정동향,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초대기업 폭망



“초대기업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게 머선 일이고” 7개사 2023년 상반기 순이익 77% 하락

* 연결재무제표 상반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준

- 우리나라는 0.01% 100개의 초대형 대기업이 전체 법인소득의 37%(196조원) 차지 법인세도 42%(37조원) 내는 구조
- 초대기업 7개사 합계 : ('21년) 42조원→('22년) 56조원→('23년) 13조원
- 우리나라 대표기업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올해만 90% 감소한 3.5조원 SK하이닉스는 작년 6.7조원 이익에서 올해 7.3조원으로 손실 전환
- 그나마 현대자동차는 작년 6.2조원에서 올해 9.4조원으로 선방

초대기업 상반기 순이익 : 2021~2023년 (조원)

구 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POSCO홀딩스	신한지주	LG 전자	카카오	합계(7개사)
2021년	22.6	4.2	4.5	4.0	3.4	3.0	0.7	42.3
2022년	29.5	6.7	6.2	4.8	3.7	2.7	2.0	55.7
2023년 (1Q/2Q)	3.5 (1.8/1.7)	-7.3 (-3.5/-3.8)	9.4 (4.6/4.8)	2.0 (1.0/1.0)	3.6 (1.9/1.7)	1.3 (0.9/0.4)	0.2 (0.1/0.2)	12.8 (6.8/6.0)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반기 보고서(2023.8.14.)

트리플 폭망



“3개 다 떨어졌다고?”

'23.7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전월대비)

- 생산 -0.7% : 광공업생산 -2.0%, 서비스업생산 0.4%
- 소비 -3.2% : 내구재(승용차 등) -5.1%, 비내구재(음식료품 등) -2.1%
- 투자: 설비투자 -8.9%, 건설투자* 0.8%, 건설수주 -55.3%
* 건설기성(건설업체의 국내공사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집계) 의미



We Crashed ②

우리 민생은 폭망했다



가계소득 폭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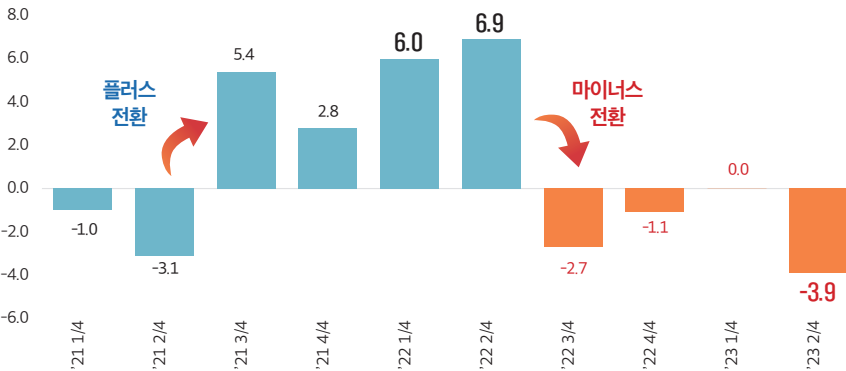


“文정부는 채우고 尹정부는 비우고”

가계실질소득 17년만에 최대폭 -3.9% 하락

- 문재인정부, 감소하던 가계실질소득이 증가세로 반전
 -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4분기 연속 실질소득 마이너스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폭(-3.9%)* 감소
- * 2008년 금융위기(-3.2%), 2021년 코로나 팬데믹(-3.1%)보다 심함

가계실질소득 : 2006년 이후 역대 최대폭 하락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1인 이상 가구 기준, 2006년부터 통계 작성)·소비자물가지수

서민소득 절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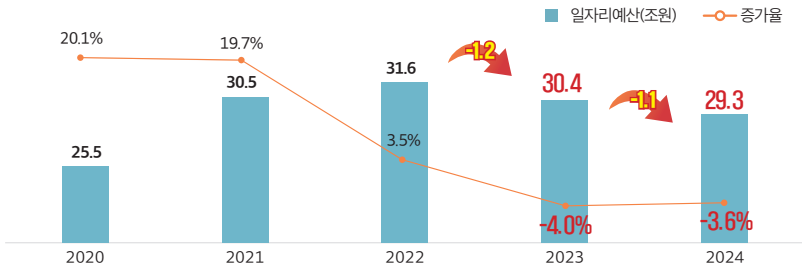


“지금까지 이런 정부는 없었다.”

부자에게 희망을, 서민에게 절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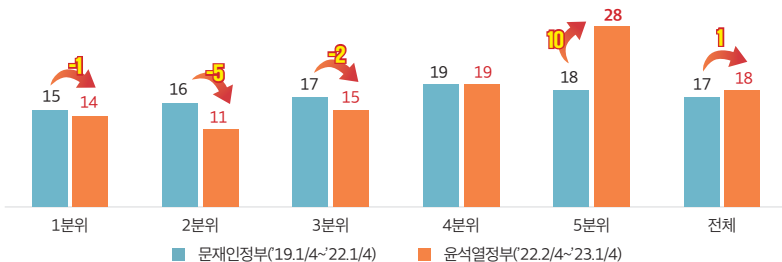
- 국민 지갑 채우는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소
-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회수혜금* 1~3분위는 감소, 5분위는 증가
*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양육수당 등 정부의 현금성 수혜금

일자리 예산은 연이어 줄이고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예산안 핵심 QA)

사회수혜금, 서민은 줄고 부자는 늘고 (만원/월)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1인 이상 가구 기준)

불평등 절망 ① : 더 낮아진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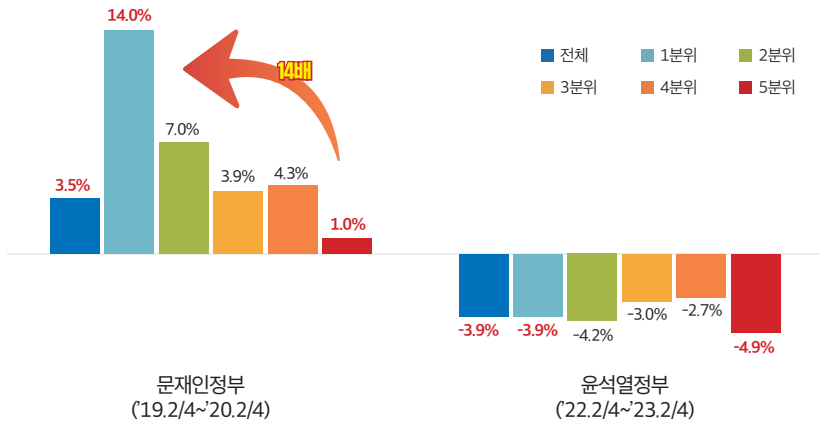
“다같이 가난해지는 마법의 시간”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두 실질소득 감소

- 문재인정부, 코로나 초기부터 저소득층 집중 지원
→ 저소득층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의 14배(19.2분기→'20.2분기)
- 윤석열정부, 코로나 팬데믹 끝났는데도 올해 2분기 소득 일제히 감소

저소득층 소득 가장 많이 증가

모든 계층 소득 하락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소비자물가지수

불평등 절망 ② : 더 심해진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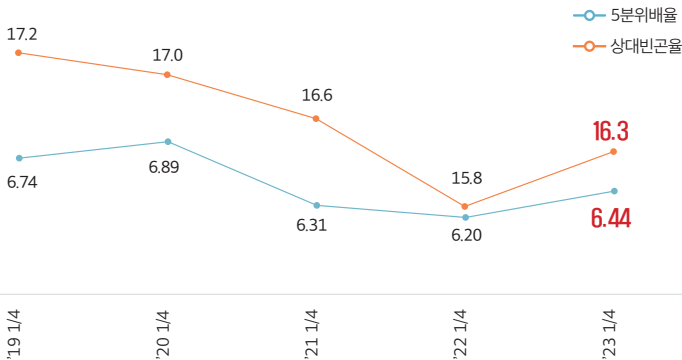
습

“성장도 놓치고 분배도 놓치고”

손놓은 尹정부, 불평등도 다시 커져

- 소득 5분위 배율* : 문재인정부에서 6.2배까지 개선
윤석열정부에서 6.44배로 악화
*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
- 상대빈곤율* : 문재인정부에서 15.8%까지 하락
윤석열정부에서 다시 16.3%로 증가(25만명 증가)
* 전체인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

나빠지는 소득불평등도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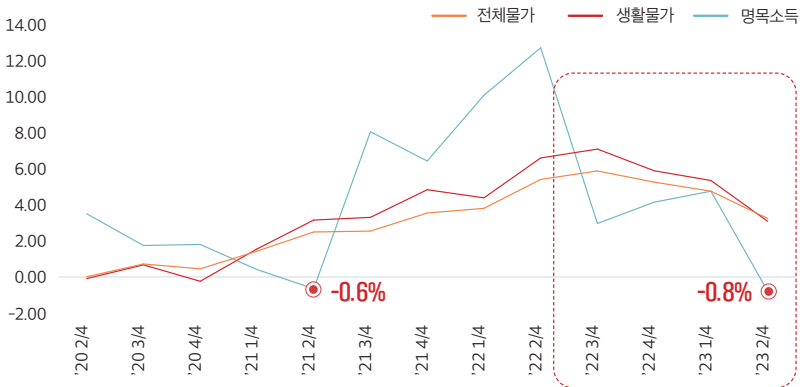
물가 고통 ① : 거꾸로 소득



“1년 동안 모두 올랐다. 내 소득만 빼고” 물가는 뛰는데 명목소득은 마이너스로 고꾸라져

- 문재인정부 : 생활물가 올랐지만, 명목소득 훨씬 더 크게 증가
- 윤석열정부 : 1년 내내 월급보다 물가가 더 빨리 상승, 살림살이 팍팍
- '23.2분기에는 명목임금마저 마이너스(-0.8%)
코로나 팬데믹 절정기('21.2분기 -0.6%)보다 심각

뛰는 물가, 가라앉는 소득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소비자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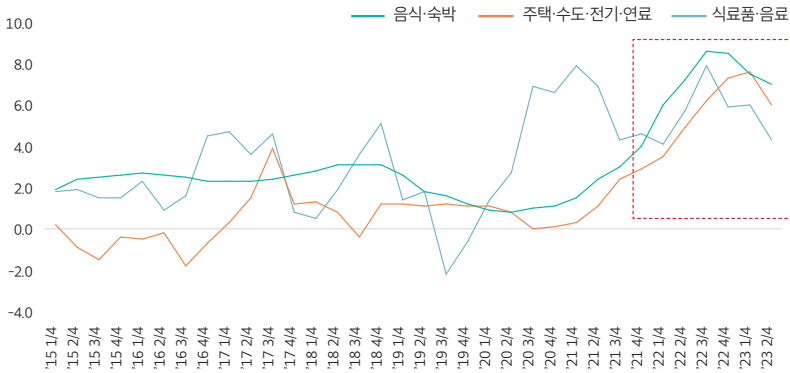
물가 고통 ② : 두려운 일상

습

“김밥도, 자장면도 너무 올랐다!” 민생 필수가격의 역습

- 민생 직결 식료품비, 공공요금, 음식비, 숙박료 상승
- 민생 대표식품 김밥 46.0%, 자장면 40.5% 가격 상승
- 추석 차례상 올릴 과일·수산물 가격 전반 상승

서민생활 짓누르는 핵심품목 물가 급등 (%)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살림살이 폭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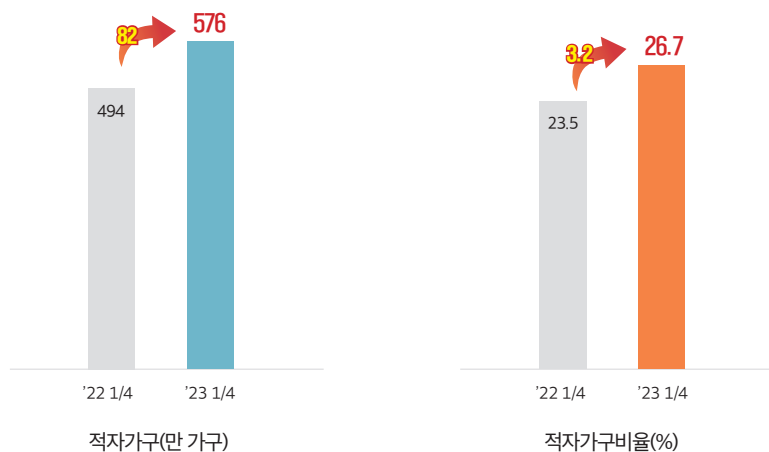


“허리띠 졸라매도 적자인생”

尹정부 들어 적자가구 82만 가구(158만명) 급증

- 1년 만에 적자가구 82만, 가구원 158만명 증가
: '22.1분기 494만 가구 → '23.1분기 576만 가구
- '23년 1분기 적자가구비율 23.5% → 26.7%, 3.2%p 증가
하위 20% 적자가구는 57.2% → 62.3%, 5.1%p 급증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적자가구 및 적자가구비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We Crashed ③

우리 재정은 폭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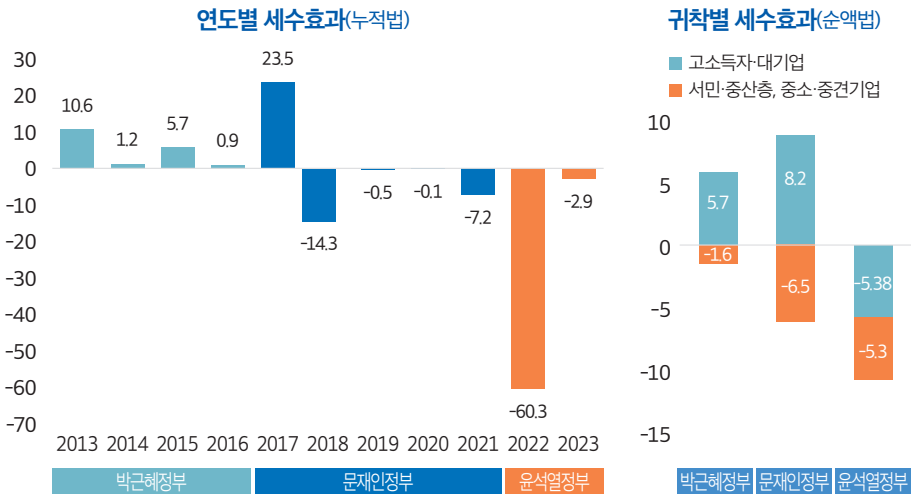
무턱대고 부자감세



“슈퍼법인, 주택부자, 주식부자 ...” 트리플 부자감세 추진

- 2022년과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감세총액(누적법) : 63조원
- 세목별 감세액 : 법인세(27조원), 소득세(19조원), 종합부동산세(7조원) 등
- 귀착별 세수효과(순액법) : 서민·중산층, 중소·중견기업(5.27조원)보다
고소득자와 대기업(5.38조원)에게 더 큰 규모의 감세 혜택 제공

역대정부별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조원)



자료 : 기획재정부 연도별 세법개정안

· 재정민주주의 원칙 1 ·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재정을 위해서는 세제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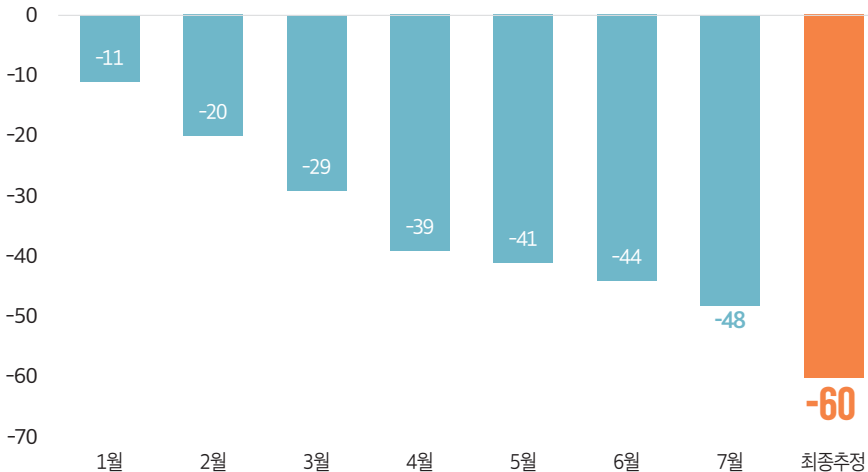
역대급 세수폭망



“400만원이라더니, 실제 월급은 340만원” 세수결손 60조원 예상, 1998년 외환위기 이상의 재정혼란

- 2023년 7월 세수결손 48조원* : 법인세 -19조원, 소득세 -16조원 등
* 전년대비 예산 증액 4.6조원 + 전년대비 실적 감소 43.4조원
- 예상했던 국세수입 400조원 중 60조원 부족할 것으로 추정
- 1998년 외환위기(-11.8%)를 초과하는 역대급 세수오차율 -15%*
* 예상했던 세수 대비 오차 비율 : -15% = 60조원 ÷ 400조원(예산)
- 본격적인 감세효과는 올해 말 종부세부터 발생

2023년 역대급 세수결손 (조원)



자료 : 기획재정부 월별 국세수입 현황

분식회계 재정운용



“올해 국가부채만 아니면 돼. 내년부터 빚으로 잡히겠지” 외평기금에서 40조원 갖다 쓰기

- 2023년 : 세수결손 60조원 중 20조원은 외평기금*에서 조달
* 기재부가 관리 주체이나, 실무는 한국은행이 담당
- 2024년 : 세입예산 20조원을 외평기금에서 조달
‘원화표시 외평채’* 18조원을 21년만에 발행 → 국가채무 증가 반영
*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 발행, 2003년 11월 발행 중단

2023년 세수결손 처리방법

지방이전 자동감소	지출 감축	세계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외평기금
24조원	16조원			20조원
	10조원	3조원	3조원	

- 현재 : 기재부 재정수지 미반영, 외평기금 20조원 감소
미래 : 외평채 발행으로 국가부채 18조원 추가
- ① 외평기금 : 20조원 감소(23년)
- ② 기획재정부 재정수지 변화 없음 : 늘어난 20조원을 지출에 사용(23년)
- ③ ‘원화 외평채’ 발행 : 국가부채 18조원 책임(24년)

2023년 기재부의 외평기금 활용에 따른 결과 (조원)

	수입	지출	수지	비고
외평기금	-	20	-20	저량(stock) 개념. 원화 외평채 발행 시 국가채무 증가
공자기금	20	20	-	유량(flow) 개념. 증가한 20조원을 지출에 사용. 재정수지에 영향 없음
전체	20	40	-20	국가부채 20조원 증가(24년 18조원, 이후 2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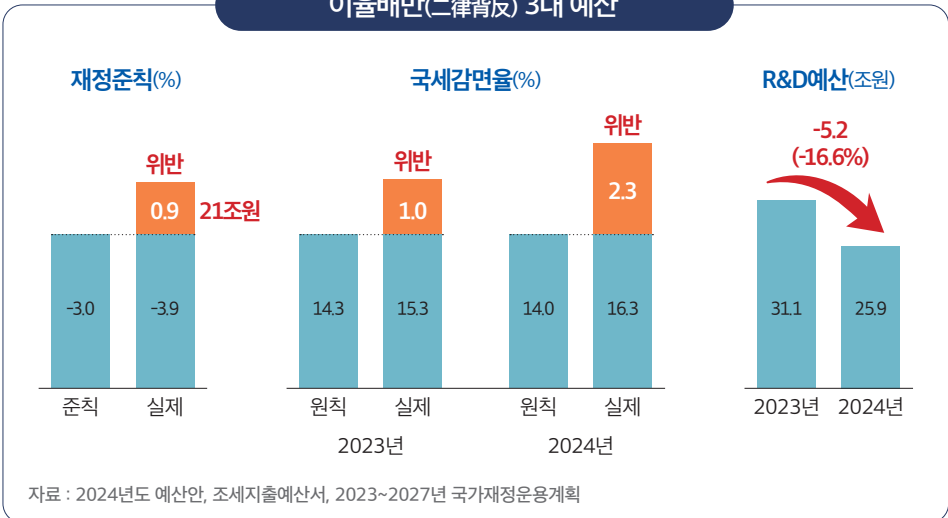
이율배반(二律背反) 예산



1. 재정준칙 주장하면서, 재정준칙 위반
2. 국세감면제도, 2년 연속 위반
3. 미래대비 주장하면서, R&D예산 삭감

-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pm 3\%$ 이내)을 지키려면 총지출 21조원 삭감 필요
→ 예산이 636조원으로 감소, 전년(639조원)대비 마이너스
- 국가재정법에 이미 있는 재정건전화 제도 ‘국세감면제도’* 2년 연속 위반
* 조세감면이 큰 폭으로 늘어 국가재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어하는 제도
- R&D예산 2023년 31조원에서 2024년 26조원으로 5조원(-16.6%) 삭감

이율배반(二律背反) 3대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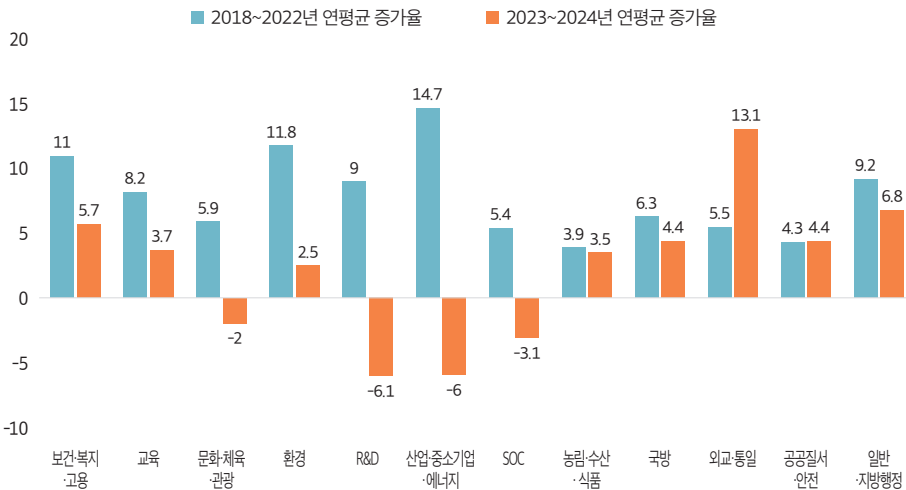
미래포기 예산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고 했는데” 성장, 에너지, 교육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 총지출예산 증가율 : ('22년) 8.9% → ('23년) 5.1% → ('24년 예산안) 2.8%
- 2018~2022년 연평균 증가율 vs 2023~2024년 연평균 증가율
 - 산업·중소·에너지 -20.7%p, R&D -15.1%p, 보건·복지·고용 -5.4%p
 - 2023년 예산 대비 교육 -6.6조원, R&D -5.2조원

분야별 예산 연평균 증가율 비교 (%)



주 : 2018~2023년은 본예산 기준, 2024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 연도별 정부 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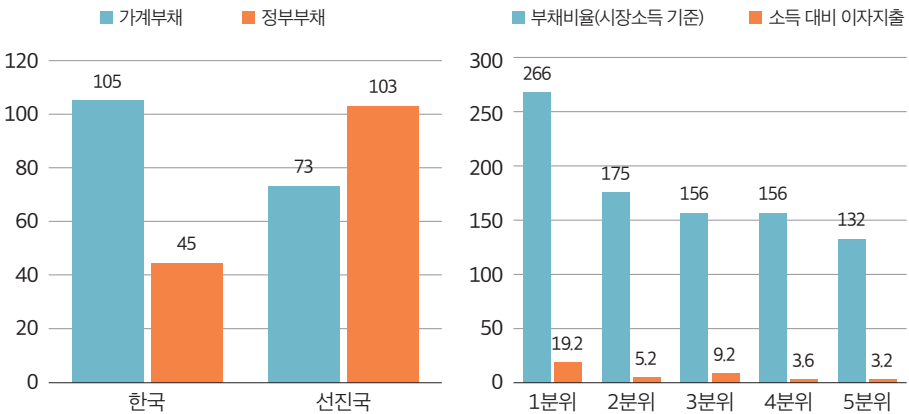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국민은 가계부채와 저소득 복합위기인데” 尹정부는 오로지 재정건전성에만 집착

- 가계부채비율(GDP대비, 2022년) : 한국 105% > 73% 선진국
정부부채비율(GDP대비, 2021년) : 한국 45% < 103% 선진국
- 시장소득 대비 이자 : 1분위 19.2%, 2분위 5.2%, 3분위 9.2% ... 5분위 3.2%
- 소득 1분위(하위소득 20%)의 시장소득 대비 부채비율 : 266%

가계부채 vs 정부부채 (%)



자료 : BIS statistics,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재정민주주의 원칙 2 ·

서민·중산층의 가계부채 축소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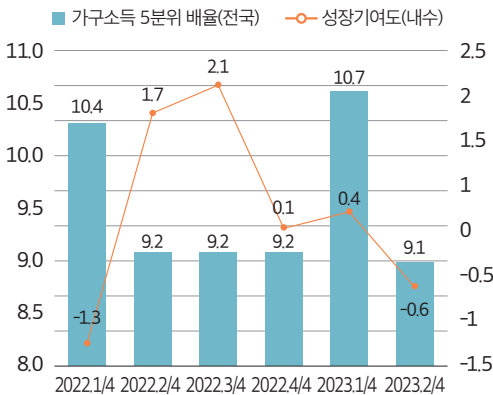
불평등 저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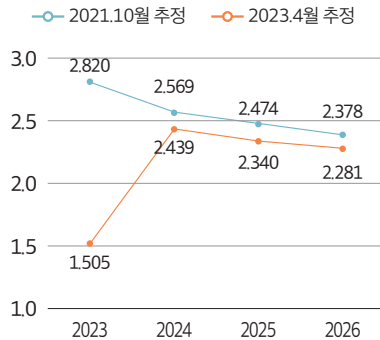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고집으로” 확대되는 소득불평등, 하락하는 경제성장률

- 가구소득 5분위 배율 : ('22.2분기) 9.2 → ('23.1분기) 10.7, ('23.2분기) 9.1
- 소득불평등 확대로 내수 성장기여도는 2022년 3분기 이후 하향 추세
- ('23.3분기) 2.1%p → ('23.4분기) 0.1%p → ('23.1분기) 0.4%p → ('23.2분기) -0.6%p
- 2021년 10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낮아진 2023년 4월 전망치
- ('24년) 2.57%→2.44%, ('25년) 2.47%→2.34%, ('26년) 2.38%→2.28%

불평등 저성장 (배수, %)



경제성장률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1인 이상 가구 기준), IMF World Economic Outlook

• 재정민주주의 원칙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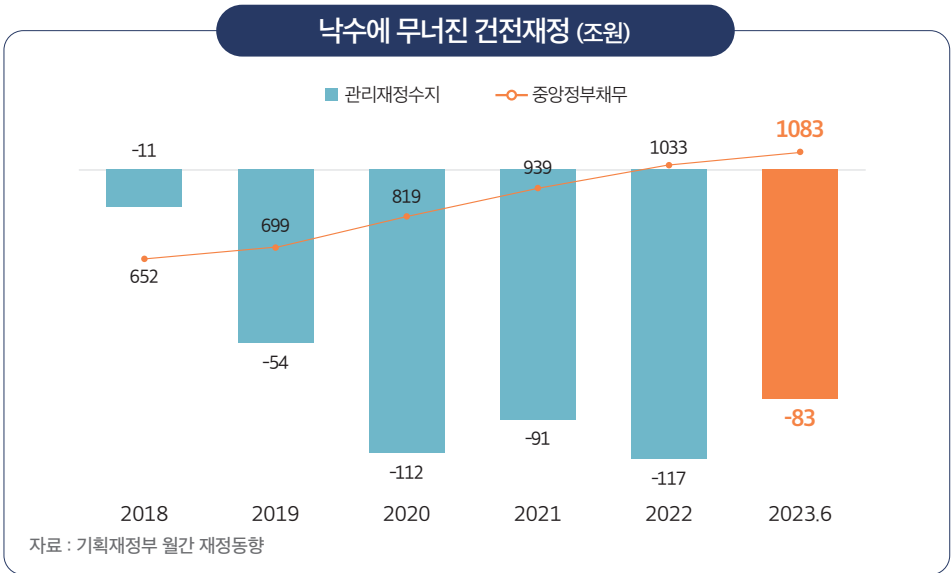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은 낙수효과가 아닌 분수효과이므로
성장률 제고를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정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낙수에 무너진 건전재정



“낙수는 모르겠고” 떨어지는 재정건전성

- 부자감세 → 재정적자 확대 → 국가채무 증가 → 부실한 채무구조
 - 2023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55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83조원* 적자
 - * 적자성 채무 비중 : (‘21년) 61.6% → (‘22년) 63.5% → (‘23년) 63.6% → (‘24년) 64.0%
- 긴축재정 → 저성장 → 세입·세출 전망치 하향조정 → 재정적자 확대 → ...



• 재정민주주의 원칙 4 •

경기침체기의 긴축정책은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므로 정부는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기초를 철회해야 한다.

尹정부야, 정답은 분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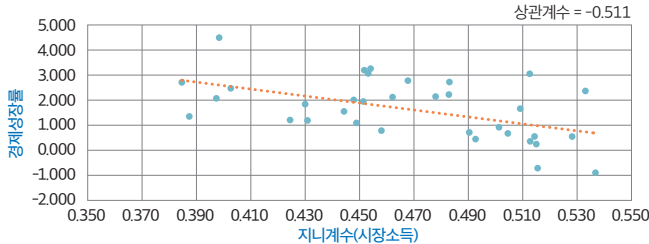


"낙수효과가 답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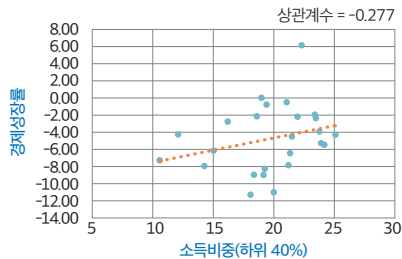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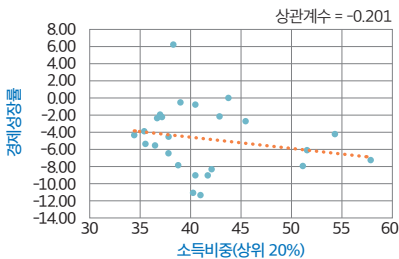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은 분수효과

- 시장소득으로 측정된 지니계수와 경제성장률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511
: 소득불평등이 개선되면 성장률은 높아진다
- 상위 20% 소득집단의 소득 비중이 증가하면 성장률 하락(상관계수=-0.201)
하위 40% 소득집단의 소득 비중이 증가하면 성장률 증가(상관계수=0.277)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률 (%)



주 : 지니계수와 경제성장률은 2012~2020년 OECD 회원국 평균값 자료 : OECD statistics



자료 : OECD statistics,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재정민주주의 원칙 5 •

분배구조의 개선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의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국가의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We Crashed ④

우리 노동자·농민은 절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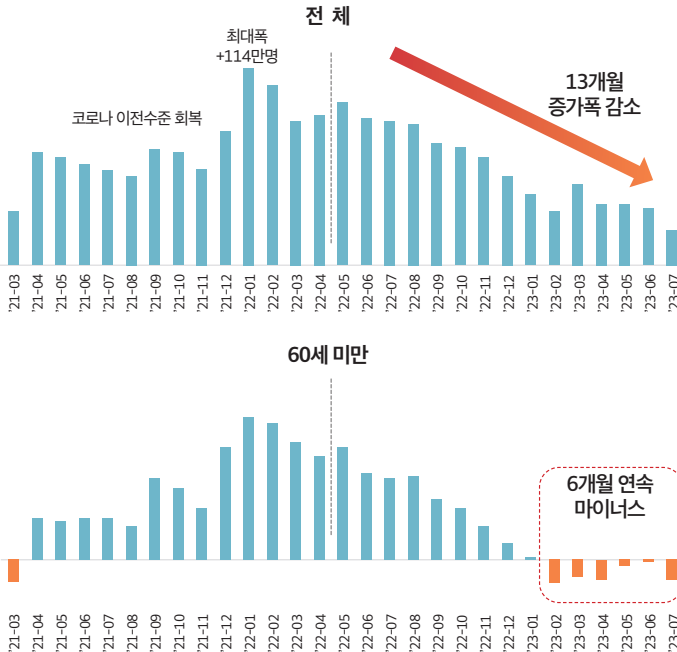
일자리 폭망



“일자리 절벽이 오고 있다. 60세 미만은 이미 왔다” 60세 미만 일자리 6개월 연속 마이너스

- 문재인정부 : 2021년 9월, 코로나 위기에도 이전 수준 취업자수 회복
2022년 1월, 2000년 1월 이후 최고 증가폭인 114만명 기록
- 윤석열정부 : 출범 이후 15개월 중 13개월 취업자수 증가폭 감소
60세 미만 일자리는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일자리 전년동기대비 증가인원 (만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일자리예산 절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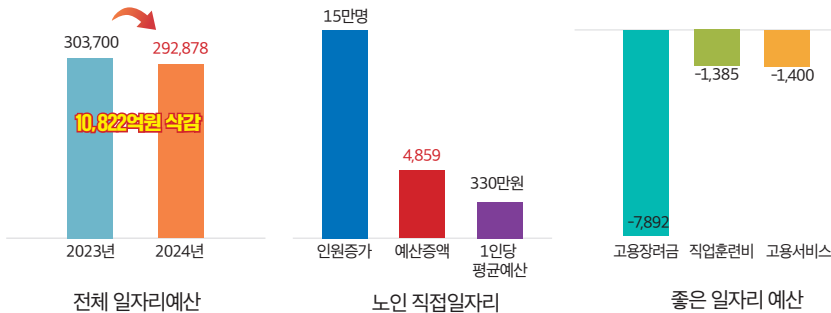


“反일자리 정부 인정?”

일자리예산, 전년대비 3.6% 삭감

- 100만 노인 일자리예산 4,859억원 증액(88만명→103만명)의 숨은 비밀
 - 비밀①: 전체 일자리예산은 1조 822억원(-3.6%) 축소
 - 비밀②: 고용장려금(-7,892억원), 직업훈련비(-1,385억원), 고용서비스(-1,400억원) 등 좋은 일자리 창출 예산 모두 축소
 - 비밀③: 값싼 일자리 창출에 매진(노인일자리 15만개, 1인당 330만원꼴)

일자리예산 절망 (억원)



자료 :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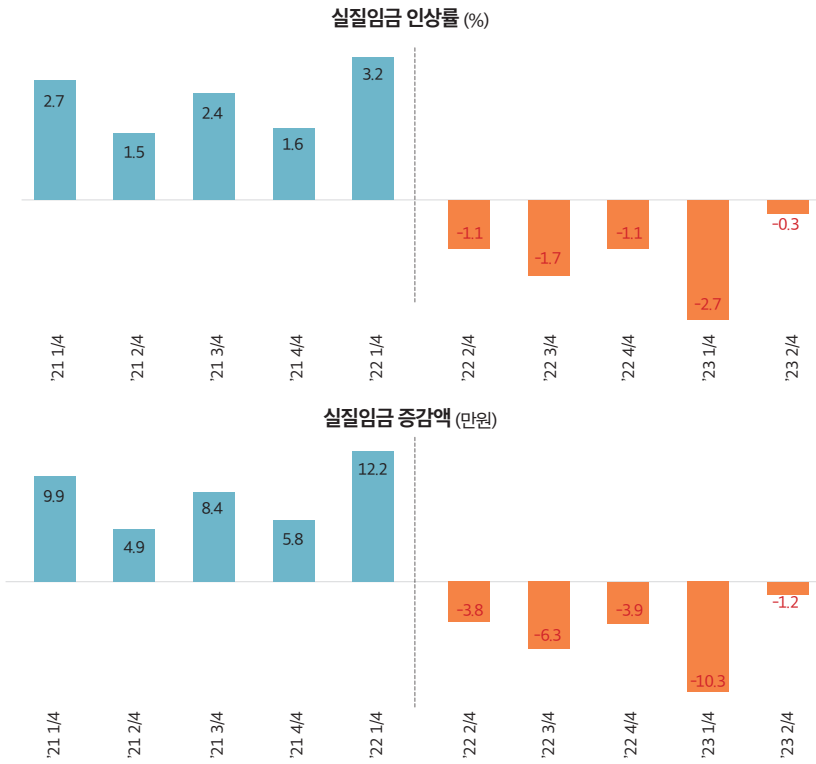
임금 폭망



“실질임금 한번도 안 올랐다!”

尹정부 출범 후 실질임금 5분기 연속 하락

실질임금 인상률 및 증감액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임금불평등 절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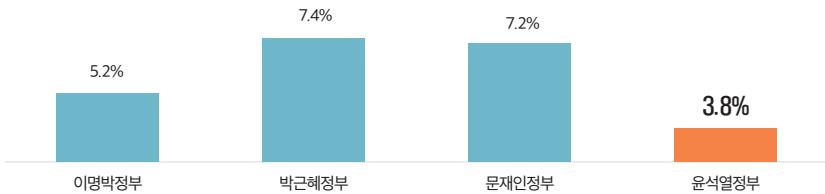


“MB 시즌2라고? No! 독보적이야”

턱없이 적은 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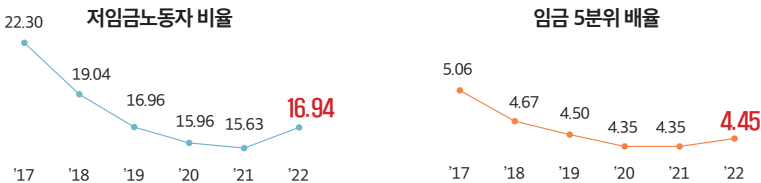
- 최저임금 인상률, 윤석열정부 최하수준(3.8%)
- 임금 불평등, 다시 악화
 - 저임금노동자 비율 : ('17년) 22.3% → ('21년) 15.6% → ('22년) 16.9%
 - 임금 5분위 배율 : ('17년) 5.06배 → ('21년) 4.35배 → ('22년) 4.45배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임금불평등 악화 (% , 배)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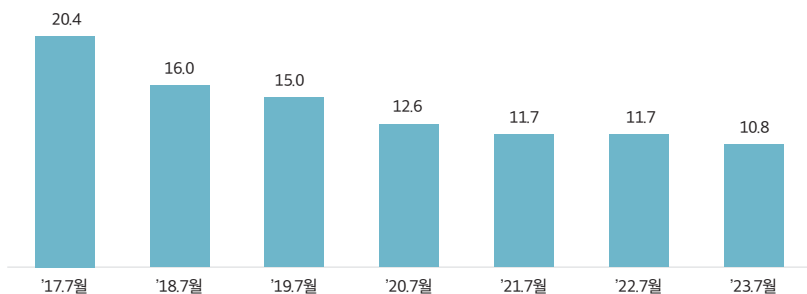
장시간노동 절망



“시대흐름 거스르는 쫄대정권, 제발 가만히 있으라!” 국민은 워라벨, 정부는 주69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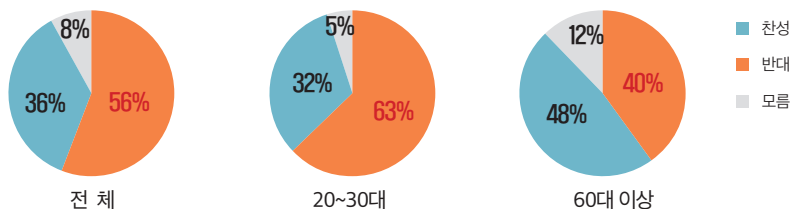
- 주 53시간 이상 노동자 비율 지속 하락 : ('17.7월) 20.4% → ('23.7월) 10.8%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단축 : ('17년) 43시간 → ('23년) 39시간
- “윤석열정부 노동개혁 = 주69시간 노동!”
국민도, MZ세대도 강력 반대

주 53시간 이상 근무자 비중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69시간제 여론조사



자료 : 한국갤럽(2023.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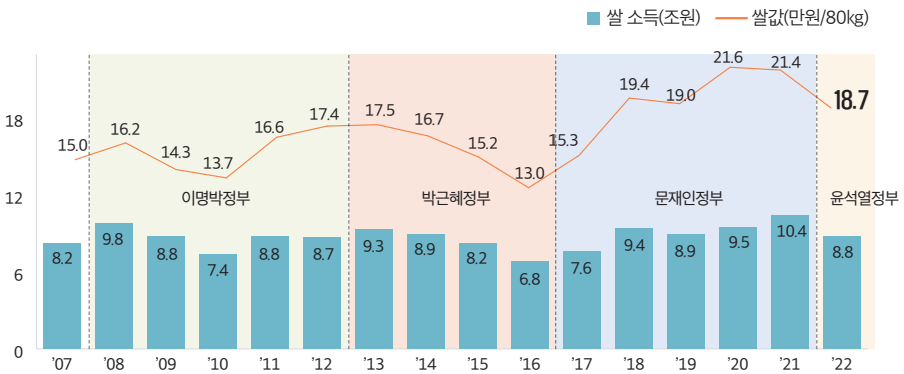
쌀값 폭망



“文정부는 쌀값 정상화, 尹정부는 쌀값 폭락” 쌀값 안정 위한 양곡관리법, 尹대통령 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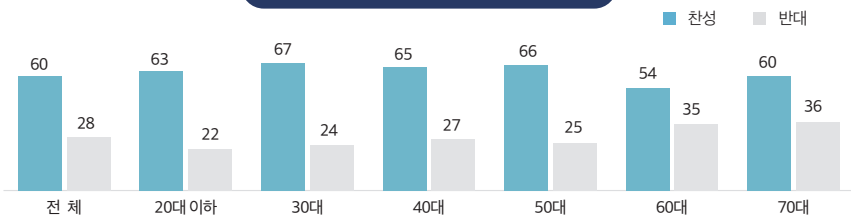
- 윤석열정부 들어 1년새 쌀값 12.5% 하락
- 농민 쌀 소득 : ('16년) 6.8조원 → ('21년) 10.4조원 → ('22년) 8.8조원
- 쌀값 안정 위한 양곡관리법, 대다수 국민 찬성
- 쌀값안정·농가소득 위해 찬성 60% vs 공급·재정부담 늘어 반대 28% (한국갤럽, '23.4.7)
- 국회 통과한 양곡관리법,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절

쌀 수확기 쌀값 및 쌀 소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통계

양곡관리법 여론조사 (%)



자료 : 한국갤럽(2023.4.7)

농민소득 폭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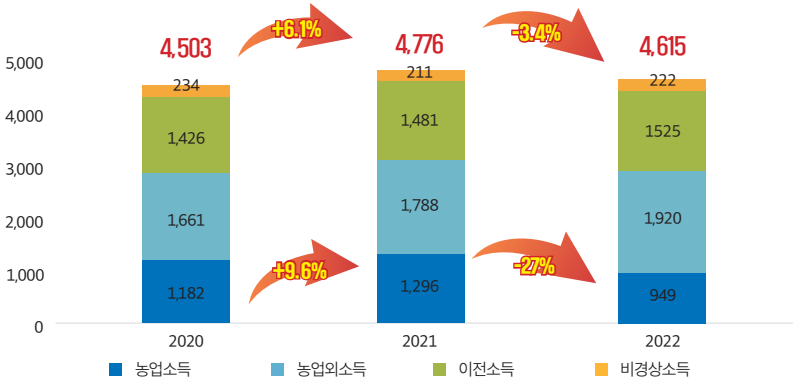


“농정 성적표, 1년 만에 나락으로”

농업소득 27%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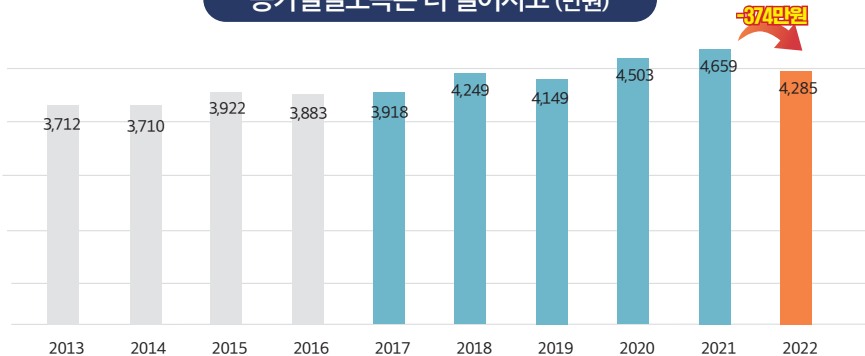
- 쌀값 하락으로 농업소득 1천만원선 붕괴
- 농가소득 161만원 감소(-3.4%), 농가실질소득은 374만원 감소(-8.0%)

농가소득 떨어지고 (만원)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결과

농가실질소득은 더 떨어지고 (만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통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결과

수산업자 절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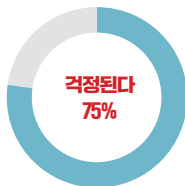


“日 오염수 방류, 국민은 불안한데 정부는 관찮다?” 어업인 피해 뻘한데, 피해보상 예산은 쥐꼬리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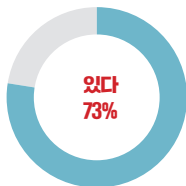
- 대다수 국민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걱정
- 어업인 피해보상 예산은 7,380억원에 불과
 - 수매·비축 3219억원, 수산물 소비 활성화 1338억원,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2238억원, 오염수 점검 576억원 등
-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특별안전조치 4법’ 당론 추진
 - ① 후쿠시마 수산물 국내유통 차단
 - ②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
 - ③ 어업인, 횡집 등 피해지원기금 마련 및 일본에 구상권 청구
 - ④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마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여론조사

1. 오염수 방류로
우리 해양과
수산물 오염될까봐



2. 오염수 방류로
우리 해양과 수산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3.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은 과장되지



4.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먹기가



자료 : 한국갤럽(2023.9.1)



We Crashed ⑤

우리 청년·여성은 절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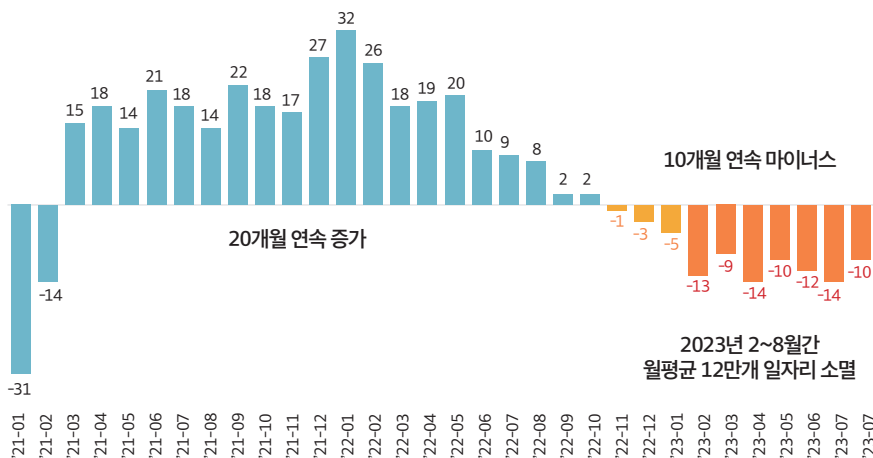
청년일자리 폭망



“대통령은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라고 했는데” 청년일자리, 10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 청년일자리, 2021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0개월 연속 증가
- 윤석열정부 출범 후 감소세로 접어들다 6개월 만에 마이너스
- 최근 7개월 동안 전년대비 월평균 12만개 일자리 소멸

청년 취업자수 증감 (전년동기대비, 만명)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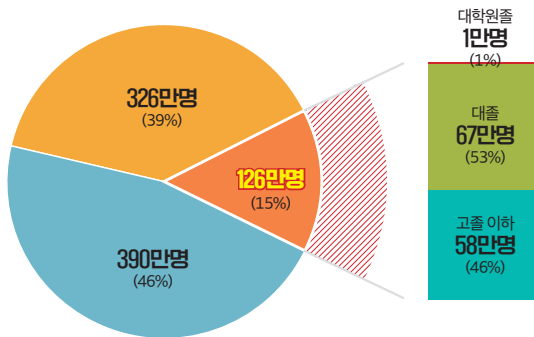
청년백수 절망



“아프니까 청년이다? 청년이니까 아프다” ‘청년백수’ 126만명 시대

- 청년(15~29세) 842만명 중 126만명(15%) 졸업 후 미취업 상태
- 청년 고용률 7개월 연속 하락, 8월 47% 기록

청년백수 126만명 시대 (2023년 5월)



■ 학업중 ■ 졸업후 취업 ■ 졸업후 미취업(청년백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청년예산 폭망



“말로만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예산, 2년 연속 삭감

- 청년일자리 예산 2023년 2조 3,652억원 삭감에 이어 2024년에도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8,500억원 삭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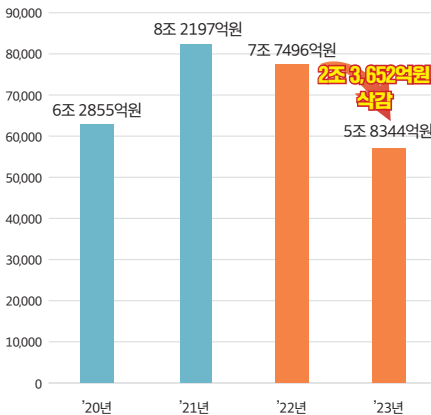
- 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2,900억원 삭감
- ②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 2,800억원 삭감

* 중소기업 재직 청년 목돈마련 지원, 2024년은 기존 가입자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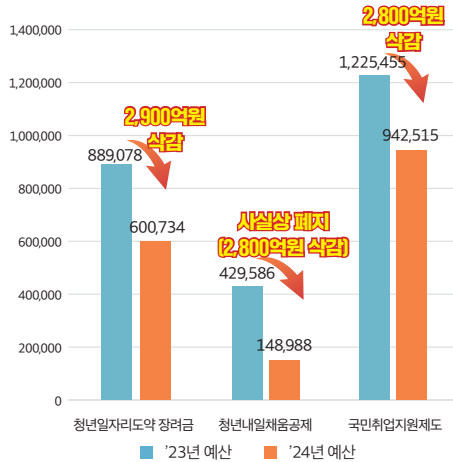
-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 2,800억원 삭감

청년일자리 예산

최근 5년간 청년일자리 예산 추이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변화 (백만원)



자료 : 연도별 중앙정부·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고용노동부 202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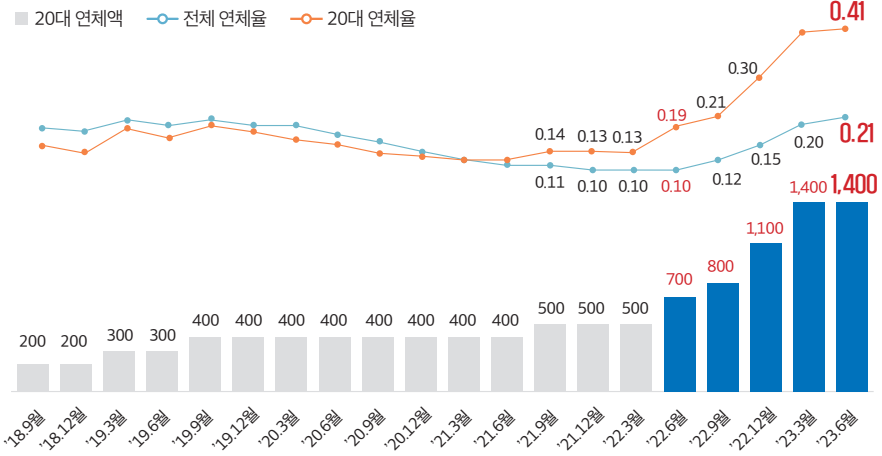
청년부채 절망



“제발 청년 재정건전성 좀 살피주세요” 연체율 급등, 역대급 개인회생 신청

- 20대 주택담보 연체율 2배 급증 : ('23.6월) 0.19% → ('23.6월) 0.41%*
* 전체 연체율(0.21%)의 2배
- 20대 주택담보 연체액 2배 급증 : ('23.6월) 700억원 → ('23.6월) 1,400억원
- 20대 신용대출 연체율 2배 급증 : ('22.6월) 0.7% → ('23.6월) 1.4%

20대 청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및 연체액 (% , 억원)



자료 : 금융감독원 19개 은행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현황

청년의 삶 절망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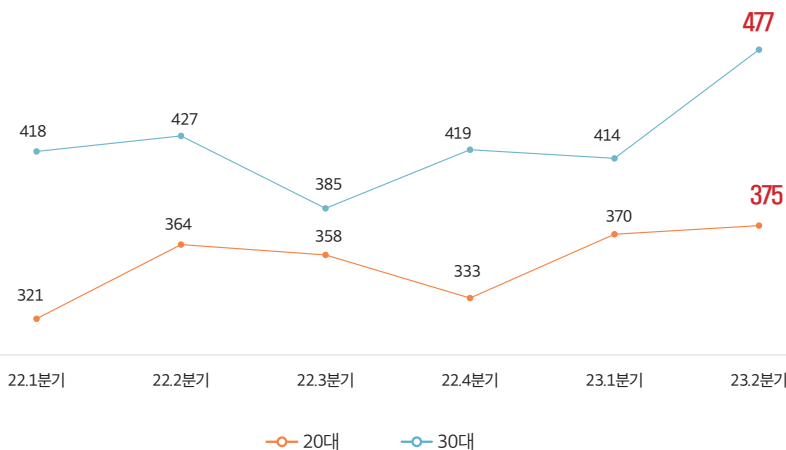
청년 자살사망자수 증가세

- 20대 자살사망자수 : (‘22.4분기) 333명 → (‘23.2분기) 375명
30대 자살사망자수 : (‘22.3분기) 385명 → (‘23.2분기) 477명
- 청년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 높은 실정

*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전국경제인연합회, 2022)

: 20대 이하 25% > 60대 16% > 30대 14% > 50대 13% > 40대 12%

청년 자살사망자수 추이 (명)



출처 : 통계청 성·연령별 특정사망원인 사망자수(고의적 자해, 잠정치)

여성안전 절망



“여성이 절규할 때 정부는 없었다” 성범죄 9.4% 증가

- 윤석열정부 이후 통신매체 이용 음란(39.4%), 공중밀집장소 추행(24.8%), 성적목적 장소침입(23.1%), 강제추행(12.2%) 등 성범죄 모두 증가
- 신림동 칼부림 사건, 분당 서현역 흥기난동 사건에 ‘장갑차 공포’ 조장
- 성범죄 증가하는데, 2024년 관련예산 대폭 삭감
 - ‘초·중·고 성 인권 교육사업’ 예산 전액 삭감
 -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 반토막

윤석열정부 시기 성범죄 증가 실태 (건)

	성범죄 전 체	통신매체 이용음란	공중밀집 장소추행	성적목적 장소침입	강제추행	강간 등	카메라등 이용촬영
문재인정부(A)	9,806	2,012	235	143	3,561	1,886	1,970
'22.2분기(중복)	10,216	2,784	292	144	3,596	1,799	1,601
윤석열정부(B)	10,723	2,804	294	176	3,994	1,713	1,744
증가율(B/A)	9.4%	39.4%	24.8%	23.1%	12.2%	-9.2%	-11.5%

* 2개 정부 동일시간 비교 : 문재인정부('21.3/4-'22.1/4), 윤석열정부('22.3/4-'23.1/4)
 자료 : 대검찰청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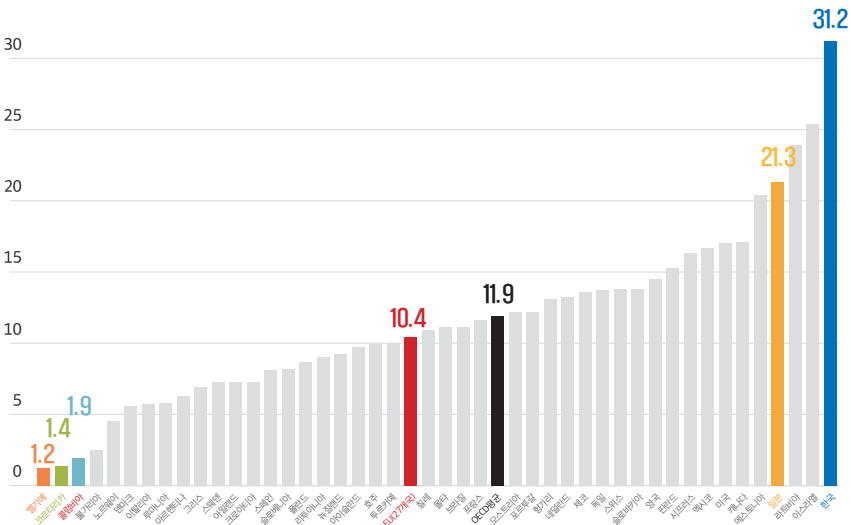
여성임금 폭망



“남성 100만원 벌 때 여성은 65만원” 남녀 임금 격차, 27년 연속 OECD 꼴찌

- 2022년 성별 월평균임금 격차 3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여성 268만원 vs 남성 413만원
- 역량, 연령, 학력, 경력 등 통제하더라도 한국 남녀 임금 격차 가장 큼 (민주연구원, 2023)
: 한국(33%) > 일본(29%) > 프랑스(14%) > 영국(13%)
- 1996년부터 2022년까지, 27년 연속 OECD 임금격차 1위 유력
: 2022년 한국 31.2% >> OECD 평균 11.9%

국가별 성별 임금 격차 (%)



주 : 2022년(한국 포함 11개국) 또는 가장 최근년도
자료 : OECD Gender Wage G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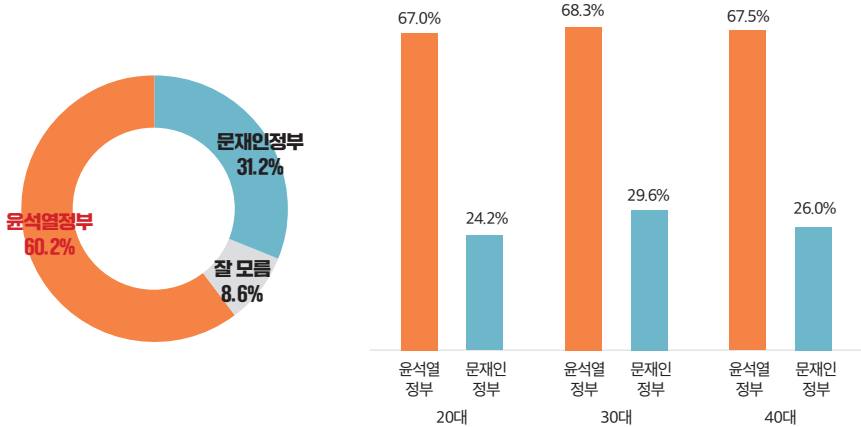
잼버리 폭망



“화장실 청소가 엉망인 게 前정부 탓이라고?” 국민 60%가 윤석열정부 책임이라고 평가

- 파행의 직접적 도화선, 화장실·숙소·무더위쉼터·해충·식사 문제는 실무 준비 부족 탓
- 중앙정부(여가부·행안부·문체부), 지자체(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
- 평창 동계올림픽이 모범사례, 대통령과 총리가 처음부터 직접 챙겼어야

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 주체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 : 미디어토마토(2023.8.11)



We Crashed ⑥

우리 기후·환경은 폭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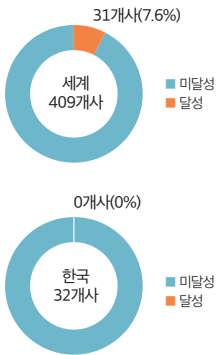
RE100(재생에너지 100%) **폭망**



“재생에너지 없어 RE100 달성 어렵다” 정부 재생에너지 목표 대폭 후퇴

- RE100* 가입 세계 409개사 중 31개사 달성 : 구글(17년), 애플(18년) 등
* 기업사용 전력량을 100%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충당하자는 글로벌 캠페인
- RE100 가입 국내 32개사 모두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매우 저조
: LG에너지솔루션 44%, 아모레퍼시픽 18%, SK하이닉스 4%, SK 3% 등
- 한국 재생에너지 비율은 OECD 최하위
: OECD 평균(23.4%), 한국(3.4%)의 7배 수준*
* 통계청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3」(23.3.29)
- 윤석열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치 크게 후퇴(30.2%→21.6%)*
* 산업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3.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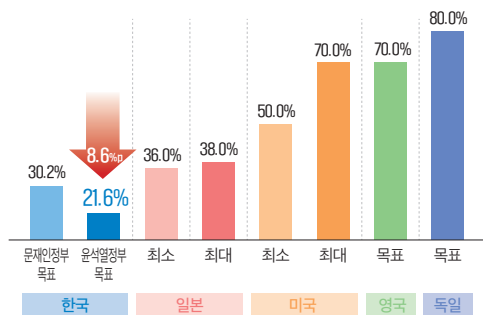
RE100 달성 0%인데



자료 : 한국ESG연구소

재생에너지(RE) 목표는 낮추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치 비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환경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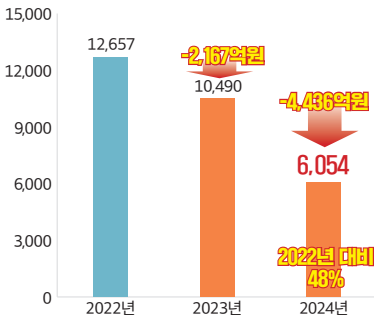
재생에너지 예산 폭망



"尹정부, 태양광사업 싹 뒤져보는데" 재생에너지 예산은 2년 만에 반토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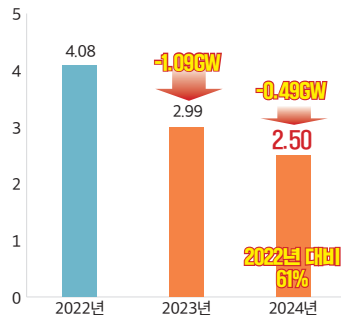
- 재생에너지 예산 2년 연속 삭감
: ('22년) 1.3조원 → ('23년) 1.0조원 → ('24년) 0.6조원
- 태양광 신규발전소 설치 용량 축소
: ('21년) 4.08GW → ('22년) 2.99GW → ('23년) 2.50GW
-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제한
- 국내 태양광 기업 내수 매출 급감('22.상반기→'23.상반기)
: 한화큐셀 -57%(2,838→1,227억원), 신성이엔지 -45%(573→318억원)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예산 (억원)



자료 : 기획재정부

태양광 신규발전소 설치 용량 (GW)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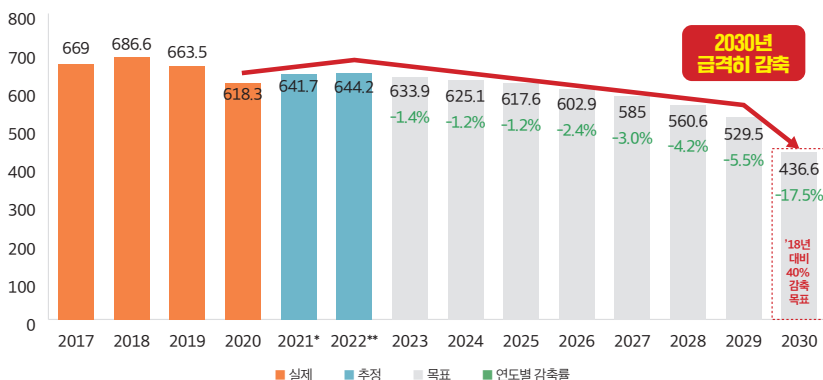
탄소감축 희망



“내 임기만 아니면 돼” 온실가스 감축에 정부 무책임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30년 탄소감축 40% 목표 세부안 발표
: 산업부문 부담은 낮추고(14.5%→11.4%), 전환부문은 높이고(44.4%→45.9%)
- 윤석열정부에서는 조금씩 감축하면서, 다음 정부에서 급격히 감축?
: 2030년 40% 감축 목표량 중 절반에 가까운 17.5%(추정)를 해당연도에 달성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강조한 선형적 감축 대비,
한국은 7년간 무려 3억 930만톤을 더 배출하는 꼴

온실가스 순배출량 (백만톤CO2eq)



주 : * 2021년은 환경부 잠정 총배출량에 2020년 흡수량 적용

** 2022년은 국회예산정책처 배출 전망에 2020년 흡수량 적용

자료 : 온실가스정보센터 및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가공 JTBC 보도자료(2023.4.10)

기후정의 똑망



“탄소중립기본법 위반!”

기업 민원 창구로 전략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1기 탄소중립위원회(21.6월) : ①8개 분과 ②70여명 민간위원 ③학계·시민단체·청년·종교계·농어민 등 다양한 민간위원으로 구성
-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2.10월) : ①분과 4개로 축소 ②민간위원 대폭 축소(72명→32명) ③아동·청년·노동계·농민 배제 ④전문가·기업·대형기관으로만 구성
- 아동·청년·노동계·농민 및 미래세대 등 민간위원 배제는 탄소중립기본법 위반* 가능성
 - *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⑤ :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윤석열정부 시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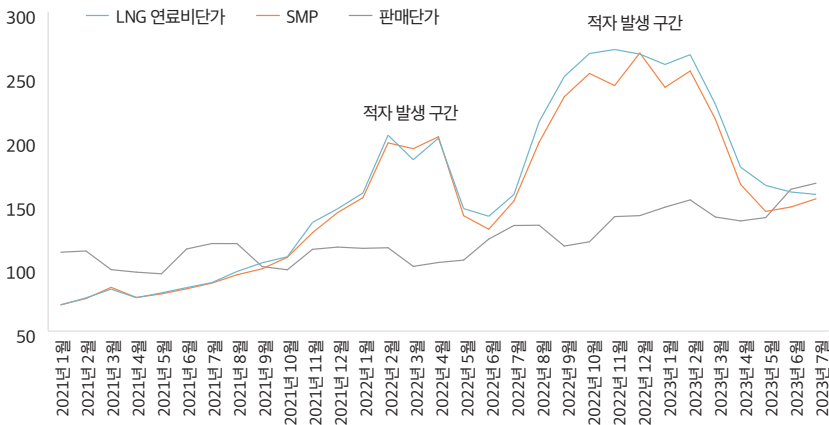
한전적자 폭증



“한전 적자 탈원전 탓? 문제는 에너지가격 급등” 한전 적자가 탄소중립 계획에 걸림돌 될 것 예견 다수

- 한전 적자 핵심 원인은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
- 한전 누적적자 : ('21~'22년) 39조원 → ('23.2분기) 47조원
한전 총부채 : ('21년) 137조원 → ('22년) 193조원 → ('23.상반기) 201조원
 - 美 JP모건 :
“한전 탄소중립 환영 ... 다만 이를 위한 한전 자금조달 여력은 우려 요인”
 - 英 파이낸셜타임스(FT) :
“한전 적자는 한국이 재생에너지에 발을 동동거릴 수 밖에 없는 원인이자 결과”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 → 한전 적자 (원/kWh)



자료 : 한전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해양주권 절망 ① : 방사능 절망



“방사능은 안전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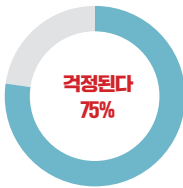
국민 대다수 피해와 오염 걱정, 대통령은 괴담 취급

- 대다수 국민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걱정,尹정부는 괴담 취급
 -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홍보물 KTX 비치
- 전체 오염수의 0.5% 방류에도 바다는 이미 변화
 - 아직 방사능 중단 총기준치(700Bq/l) 미만이나, 10Bq/l 일부 검출
- 美 국립학술원 :

“안전치 이하라고 해서 방사능 위험이 제로가 아니라, 방사능 위험은 방사능 노출량에 직선적으로 비례하며 방사능은 안전치(역치)가 없다”
- 방사능 누적으로 인한 해양생물 오염이 문제
 - : 기준치 180배 ‘세슘 우락’이나 ‘방사능 쥐노래미’가 후쿠시마 해안에서 포획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여론조사

1. 오염수 방류로
우리 해양과
수산물 오염될까봐



2. 오염수 방류로
우리 해양과 수산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3.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은 과장되지



4.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먹기가



자료 : 한국갤럽(2023.9.1)

해양주권 절망 ② : 오락가락 여당대표



“핵오염수 투기 반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김기현 당대표, 日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서명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말바꾸기
 - 2020년 10월 : “현재 기술로는 삼중수소를 제거할 수 없다.
국제 소송과 가치분 신청도 해야 한다”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
 - 2021년 4월 :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규탄 및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서명
 - 2023년 9월 : “오염수 가짜뉴스 판치는데 … 아무도 책임 안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안 공동발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9796
----------	------

발의연월일 : 2021. 4. 29.

발 의 자 : 조태용 · 강대식 **김기현**

김석기 · 김성원 · 김태호

박대수 · 박진 · 이태규

전봉민 · 정진석 · 정찬민

지성호 · 최형두 · 태영호

한무경 의원(16인)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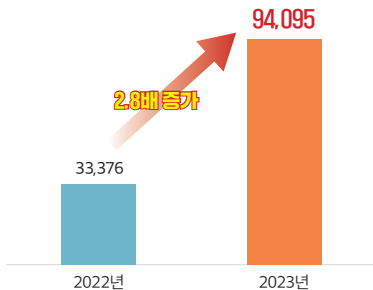
수질관리 폭망



“같은 통계가 4개월 만에 28.7배 증가한다고?” 역대 최악 녹조, 수질관리 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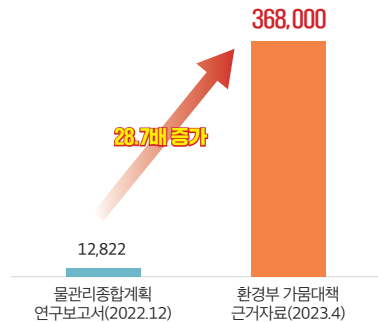
- 낙동강 수질 비상: 강물의 정체시간과 밀접한 유해 남조류 수가 전년 대비 2.8배 이상 증가
 마이크로시스틴 등 정수과정에서 독성 강화 가능성
- 영산강·섬진강 최대 생활·공업용수 부족량 통계, 4개월 만에 28.7배 증가
 : 尹정부, 댐 증설 필요성 근거로 ‘생활·공업용수 부족량’ 통계치 부풀리기
- 윤석열정부는 4대강 보 유지 및 댐 증설에만 관심

낙동강 상류 녹조 몸살 (개체수/ml)



주: 안동댐 예안교 유해 남조류 세포수
자료: 안동시청

정부인용 생활·공업용수 부족량 통계 (톤/일)



주: 영산강·섬진강 과거 최대 부족량 기준
자료: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환경부 희망



“환경부는 환경오염관망부인가?”

환경부 일회용품 보증금제 스스로 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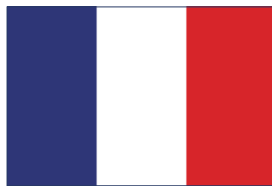
- 일회용품 보증금제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유예
 - 감사원: “법 취지에 맞게 전국적 시행을 조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vs 정부: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로 전환, 자원순환 정책 퇴보
- 독일은 2003년부터 일회용기 보증금제(Pfand) 시행, 빈 용기 회수율 98% 달성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 삭제
 - : 2010년 이후 일관된 하천관리 패러다임 ‘자연성 회복’ 폐기

일회용품 보증금제 시행 유예



한국

일회용품 보증금제
전면 시행 유보



프랑스

패스트푸드점 일회용 접시
및 수저 사용 전면금지



독일

2003년부터
일회용기 보증금제 시행

We Crashed ⑦

우리 중소기업·자영업은 폭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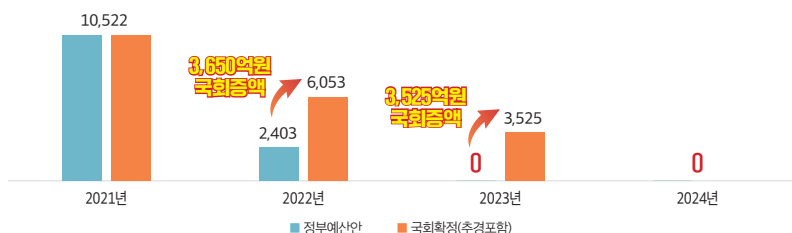
자영업 예산 폭망



“말로는 자영업 지원, 실제로는 안면몰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년 연속 0원 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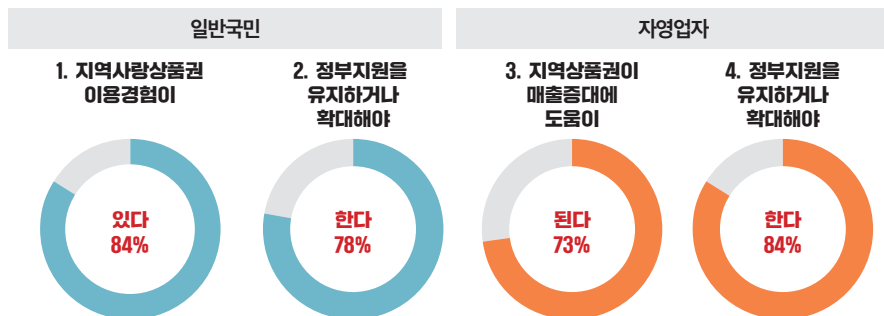
- 골목상권 지킴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 (‘21년) 1조 522억원 → (‘24년) 0원
- 일반국민(78%), 자영업자(84%) 모두 정부지원 유지 또는 확대 의견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추이 (억원)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예산안)

지역사랑상품권 여론조사



자료 : 엠브레인(2022.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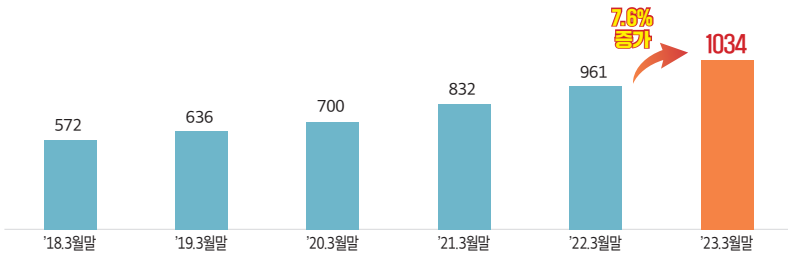
자영업 대출 폭망 ① : 다중채무자 급증



“자영업 부채, 규모도 커지고 질도 나빠지고” 자영업 대출 1000조원, 질 나쁜 다중채무 700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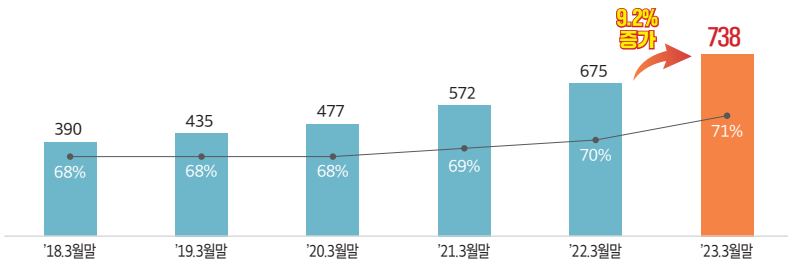
- 2023년 3월말 자영업 대출잔액 1034조원, 자영업 다중채무* 738조원
*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위험채무
- 다중채무 비율 : ('18.3월말) 68% → ('23.3월말) 71%

자영업자 대출잔액 (조원)



자료 : 한국은행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잔액 및 다중채무 비율 (조원)



자료 : 한국은행 자영업자 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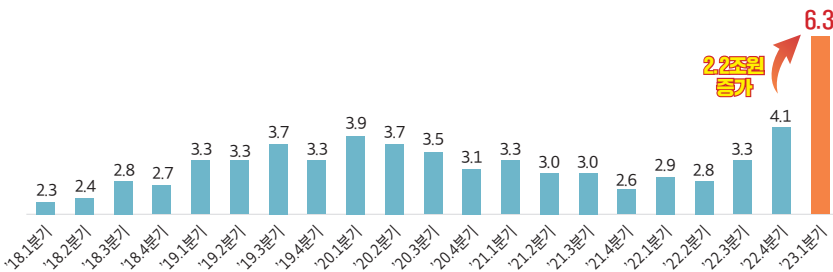
자영업 대출 폭망 ② : 연체율 급등



“임대료도 못 내고 파산할 지경인데, 정부는 뒷짐?” 질 나쁜 채무 급증, 연체율도 급등

- 연체액(+2.2조원) 및 연체율(+0.35%p) 모두 급증
: 2023년 1분기 연체액 6.3조원, 연체율 1%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조원)



자료 : 한국은행 자영업자 대출 현황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



주 :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자영업자 대출 현황

중소기업 폭망



“중소기업은 한숨만! 수출도 안 되고 빚도 못 갚고” 중소기업 수출 5.6% 감소, 연체율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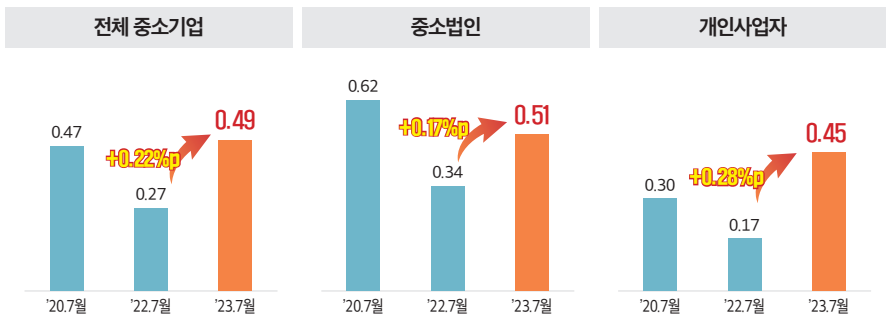
-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반등한 중소기업 수출, 다시 감소세 전환
- 경영난, 자금난, 고금리로 연체율 급등

중소기업 수출액 변동 (억달러)

구 분	'18.상반기	'19.상반기	'20.상반기	'21.상반기	'22.상반기	'23.상반기
수출액	525	497	465	556	591	558
증가율	-	-5.3%	-6.4%	19.6%	6.3%	-5.6%

자료 : 중소기업부

중소기업 대출연체율 변동 (%)



자료 : 금융감독원 '23.7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벤처 폭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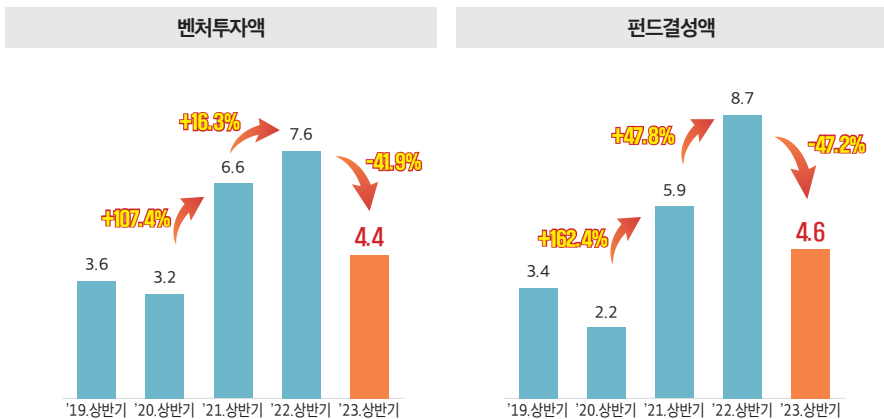


“말로는 벤처 육성, 실제로는 투자 반토막”

文정부 때 ‘제2벤처붐’, 尹정부가 1년 만에 무너뜨려

- 문재인정부 : 코로나 팬데믹에도 ‘제2벤처붐’
 - 벤처투자 → 디지털 전환 선호 → 일자리 창출
 - 벤처투자액 : ('20.상반기) 3.2조원 → ('21.상반기) 6.6조원 → ('22.상반기) 7.6조원
 - 펀드결성액 : ('20.상반기) 2.2조원 → ('21.상반기) 5.9조원 → ('22.상반기) 8.7조원
- 윤석열정부 : 1년 만에 ‘제2벤처붐’ 반토막
 - 벤처투자액 : ('22.상반기) 7.6조원 → ('23.상반기) 4.4조원
 - 펀드결성액 : ('22.상반기) 8.7조원 → ('23.상반기) 4.6조원

최근 5년간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현황 (조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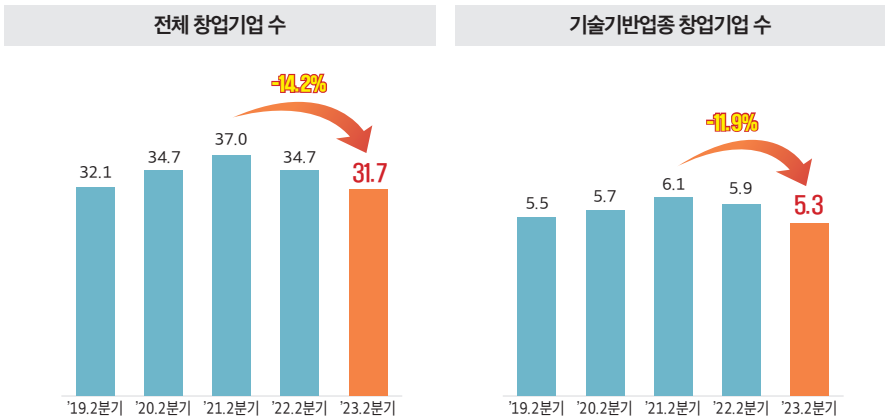
창업 폭망



“기술과 아이디어가 무슨 소용? 창업여건이 안되는데” 尹정부 기술창업 11.9% 감소

- 창업 전체(생계형 창업 포함) : 2년 만에 14.2% 감소(37만개→31.7만개)
-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되던 기술기반업종 창업, 윤석열정부 들어 11.9% 감소 : ‘제2벤처붐’으로 기술기반업종 창업 급증하다, 최근 감소

창업기업 수 2021년 대비 감소 (만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R&D 예산 폭망



“R&D 챔피언 한국에 무슨 일 있나요”

R&D 예산 5조원 삭감(-17%)

- 중기부 R&D 예산 5천억원 삭감 : 1.8조원 → 1.3조원 (-25.4%)
 -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예산 85% 삭감(2,183억원 → 336억원)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예산 1,630억원 삭감
- 반도체·인공지능·양자기술·우주 등 R&D 사업 예산 대폭 삭감
- 사이언스(세계 3대 과학학술지) : “과학지출 챔피언 한국이 예산 삭감을 제안”
- 노벨셀로프 맨체스터대 교수(노벨상 수상자) : “R&D 예산 삭감이 한국 과학계에 타격”

반도체·인공지능·양자기술·우주 분야 R&D 예산 삭감 상위 5개 항목 (억원)

분 야	순 위	항 목	'23년 예산	'24년 예산안	삭감액	삭감율
반도체	1	인공지능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	102	10	-92	-90.2%
	2	인공지능반도체 응용기술개발	120	30	-90	-75.0%
	3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소자)	283	212	-71	-25.1%
	4	반도체 설계검증 인프라 활성화	120	60	-60	-50.0%
	5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설계)	323	279	-43	-13.4%
인공지능	1	인공지능중심산업 융합집적단지 조성1	571	366	-205	-35.8%
	2	인공지능챗린지 선도기술 개발사업	100	14	-86	-86.0%
	3	인공지능중심산업 융합집적단지 조성2	67	7	-59	-88.8%
	4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개발	499	451	-48	-9.6%
	5	인공지능 산업융합기술개발	26	12	-14	-55.0%
양자기술	1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80	16	-64	-80.3%
	2	양자정보과학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130	115	-15	-11.3%
	3	양자기술 국제협력 강화	90	78	-12	-13.4%
	4	양자인터넷 핵심원천기술개발	96	86	-10	-10.0%
	5	양자암호통신 집적화 및 전송기술 고도화	76	67	-9	-11.8%
우주	1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	416	255	-162	-38.8%
	2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314	191	-123	-39.1%
	3	스페이스 챌린지	138	43	-95	-68.8%
	4	우주개발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사업	94	21	-73	-78.1%
	5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	329	276	-53	-16.2%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입니다.

민주연구원은 대한민국과 더불어민주당의 비전과 전략 수립,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정책개발에 매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과 국가전략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 경제정책 평가 핸드북

We Crashed

우리 경제·민생은 폭망했다

발행처	민주연구원
발행인	정태호
인쇄·제본	경성문화사
발행일	2023.10.6.

윤석열정부 경제정책 평가 핸드북

We Crashed

우리 경제·민생은 폭망했다